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 '제자리'... '졸속' 우려

여야 의원정수·권역별비례대표 도입 공방전에 뒷전 밀려

7일부터 8월국회 시작...국정원 해킹·선거제도 개편 쟁점

내년 4월 총선거의 선거구획정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면서, 이번에도 선거구획정이 선거가 임박해서 '졸속'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사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버린 양상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과거에도 비랑 끝에 몰려서야 막판 졸속 타협으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 온 편이다. 17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2004년 2월27일야야 분회의를 통과했다. 18대 총선에서는 2008년 2월15일, 19대 총선은 2012년 2월27일로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대로 된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는 13일까지 국회가 획정기준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6개월 전인 10월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주도 남지 않은 '데드라인'을 어길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2일 "선거구획정 논의가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어 2주 안에 획정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내부적으로는 8월말까지 최대한 획정기준 마련을 끝내보자는 목표를 잡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자 그동안 6개월의

활동기간을 허송세월한 정개특위는 애초 8월말까지였던 활동시한을 연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지도부와 정개특위 간사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체를 꾸려 선거구 획정 기준만이라도 빨리 합의를 해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획정위가 그에 맞춰 다양

한 시뮬레이션 작업 등을 토대로 최적의 선거구 획정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데, 획정기준 마련이 늦어질수록 10월13일 마감시한에 쫓겨서 획정 작업이 어려움을 겪을 게 불 보듯 뻔하다.

나아가 획정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선거구획정 기준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숫자도 정해져야 하는데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도 정개특위 논의가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벽에 부딪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불씨를 되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제도를 공식 제안한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애초 예정일보다 앞당겨 3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한국정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31일 오는 7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8월 국회에서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태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무성, LA하계 스페셜올림픽 방문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동료 의원들이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LA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로스앤젤레스 하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를 방문해 나경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장, 팀 슈라이버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장, 패트릭 맥클라나한 LA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 한국선수단 등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동료 의원들이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LA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로스앤젤레스 하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를 방문해 나경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장, 팀 슈라이버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장, 패트릭 맥클라나한 LA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 한국선수단 등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영선, 광주서 출판기념 사인회

8일 광천동 영풍문고... '누가 지도자인가' 회고록 출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8일 오후 3시 광주 광천동 버스터미널 내 1층 영풍문고에서 자신이 펴낸 회고록 '누가 지도자인가' 사인회를 한다. 지난 7월 25일 서울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개점 이래 최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첫 사인회를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책에 20여년의 기자 생활과 10여년의 정치인 생활을 거치면서 만난 국내외 지도자들과의 뒷얘기를 담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2일 사인회의 첫 지방행으로 광주를 선택한 것에 대해 "우리 시대 최고의 지도자상으로 만델라의 환한 미소와 닮은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김대중, 만델라 두 분 모두 분노와 고통을 용서와 평화로 승화시킨 공통점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었다"며 "이제 국민은 만델라의 미소를 품은 김대중의 비전을 넘어서는 포용의 리더쉽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저서에는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전 대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전 총리 등 박 전 원내대표가 겪은 국내외 지도자들 14명의 이야기가 실렸다.

한편 광주 저자 사인회를 앞두고 이 책에 대한 언론과 각계 각층의 서평, 개인적인 격려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박준영 전 전남지사 "내년 총선 불출마"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두 버렸다"고 덧붙였다.

박 전 지사는 2일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 탈당을 결심하면서 마음을 비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동안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박 전 지사가 목포나 영암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이러 "현재의 새정치연합으로는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차츰 지방선거도 어렵다"며 "이렇게 되면 일본 자민당처럼 새누리당이 독주하게 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당 창당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지사는 "탈당을 앞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내가 나서 신당의 물꼬를 터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치적 욕심은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비례대표, 내년 총선 지역구 노린다

새정치 김광진 의원 순천에 사무소 마련...너도나도 출마 체비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는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앞을 다투어 내년 4월 총선 지역구 출마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새누리당도 비례대표 27명 중에서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은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손인준 의원과 조직위원장직을 내놓은 양창영 의원 정도다. 박정식(경기 구리)·민병주(대전 유성)·이상일(경기 용인)·이재영(서울 강동)·조명철(인천 계양) 의원 등은 일찌감치 조직위원장직을 맡았으며, 강은희·이재사·최봉용 의원 등도 사실상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 21명 중 절반 가까이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2일 현재 김기준(서울 양천)·백근기(경기 용인)·진성준(서울 강서)·홍의락(대구 북구) 의원 등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현(안산 단원)·배재정(부산 사상)·은수미(성남 중원)·진선미(서울 강동)·최동익(서울 동작)·한정애(서울 강서)·남인순(성무 송파) 의원 등이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출마체비를 본격화했다.

청년 몫으로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김광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순천에 사무소를 마련, 주말마다 내려가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민들을 만나고 있다.

당 대변인 출신인 이상일 의원은 경기 용인에 도전장을 내밀어 지난해 5월 일찌감치 조직위원장 자리를 맡아 1년 넘게 지역을 다지고 있다. 역시 대변인을 지낸 민현주 의원의 경우 인천 연수구로부터 분구가 예상되는 송도를 공략대상 지역으로 낙점하고 활동을 개시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野 신당파, '민주당'과 연대설 관심 주목

천정배-김민석 접촉 주장에 천의원측 부인

합류땐 내년 총선 호남민심 향배 최대 변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재편 움직임과 맞물려 신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파와 원외정당인 민주당의 연대설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당·탈당파는 야권 적통성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민주당'이란 간판을 확보하게 되고, 원외 정당으로 존재감이 없었던 민주당으로서 정치적 세(勢)를 키울 기회라는 점에서 그림이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 진영의 핵심 인사가 민주당 진영의 김민석 전 최고위원과 접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0년 대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로 5년간 손과 발이 묶였지만, 내달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돼 야권 재편 과정에서 나름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과의 접촉설에 대해 필적 뒤고 있다.

아직 신당 창당 여부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는데 민주당과 접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천정배 의원 진영의 영동연 전 의원은 2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모 인사는 김민석 전 의원에 대해 극히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민주당과 접촉했다는 것은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천정배 의원 진영에서는 부인하고 있

지만 당내 신당파들과 민주당의 접촉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연 전 원내대표도 트위터 글을 통해 "신당 장당파들이 민주당과 함께 한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신당파의 결합이 현실화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향배 등 전체적인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의 핵심 관계자는 "신당파와 민주당이 결합한다면 그 파괴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놓고 새정치연합과 신당 세력이 경쟁을 벌이며 민주당의 '몸값'이 치솟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가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平日	12,500원	8,500원
토·일, 공휴일	14,500원	9,000원
		5,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가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201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망과
유망 투자 지역 **대분석**

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낱알이 밝히고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부동산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5. 8. 4(화)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 상반기 부동산 시장 결산 및 하반기 전망
-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자처 매물 분석 및 공개
- 16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응
- 부동산 가격상승 핵심지역 분석
- 돈되는 부동산 투자법 공개
- 가장 미래가치가 있는 땅은 무엇인가?
- 소액투자자 월세받는 비법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네티즌클럽 개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김영표